

# “2野 경쟁과 협력... 대선 승리 역량 모아야”

## 3당 체제 ‘호남정치’

### 정권창출의 길

호남 민심은 20대 총선을 통해 야권 재편을 주도하며 정치권의 지각 변동을 이끌어냈다. 호남 28석 가운데 23석을 국민의당에 몰아주는 등 20년 만에 3당 체제를 만들어 낸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는 전남 1석과 전북 2석만을 허용하며 강력한 심판을, 새누리당에게는 전남과 전북 각 1석을 주면서 최소한의 여지를 남겼다.

이 같은 호남 민심의 폭발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후폭풍이 불었던 지난 17대 총선보다 더 강력했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호남 31석 가운데 25석(광주 7석, 전남 7석, 전북 11석)을 차지, 80.6%의석을 점유했다. 이번에는 국민의당이 82.1%의석 점유율을 기록, 민심의 집중도와 폭발력이 더 높았다.

여기에 전국의 호남 유권자들은 경쟁력 있는 터민주 후보를 지지하는 한편, 정당 투표에서는 국민의당을 선택하는 교차투표에 나서면서 여소야대 구조에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는 황금 분할을 만들어 냈다.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호남 민심의 함의는 무엇보다 야권 재편을 통한 정권 교체에 방점이 찍혀 있다. 대선을 앞두고 양당 체제를 붕괴시키고 국민의당이라는 대

안 세력을 만들어 야권에 경쟁을 하게 만드는 절묘한 전략적 선택을 했다. 여기에는 정권 교체에 호남 정치권이 주도적으로 나서라는 요구도 깔려 있다. 대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이 ‘캐스팅 보트’를 권 셈이다. 이에 따라 이제 야권이 호남 민심의 요구에 ‘응답’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권창출 방법론=대선에서는 각 당의 후보가 경쟁을 벌이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여권 후보 1명에 야권 후보 2~3명이 나선다면 국내 정치 현실상 야권 후보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 이에 3당 체제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는 연립정부 구성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DJP(김대중+김종필, 호남+충청, 새정치국민회의+자유민주연합) 연합과 같은 조건이 필요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터민주 후보가 패권주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누리당 후보가 개혁적 보수라면 국민의당과 연립정부 구성을 전제로 후보단일화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지역적 차별구

있다. 반면, 여권에서는 경쟁력 있는 대선 주자를 찾아보기 힘든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야권의 대선 승리는 장담할 수 없다. 터민주가 이번 총선에서 원내 1당으로 부상한 것은 자체 동력보다는 박근혜 정부 실정과 새누리당의 오만에 대한 심판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보수 진영은 모든 정치 질서에서 아직도 강고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권에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깊은 성찰과 의미 있는 경쟁 구도가 필요하다. 터민주는 당내 패권주의 극복은 물론 수권 정당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당과 정치공학적 통합을 주장하기 보다는 경쟁과 협치를 통해 정치적 신뢰 구축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도 새정치와 정권 창출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물론, 민생우선의 원칙을 지렛대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정국을 주도하는 능력을 보여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호남 정치권도 대선을 앞두고 소통과 결집이 필요하다.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정권창출과 호남 정치 복원을 견인하기 위해 서로 밀고 끌어주는 통 큰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또, 호남 정치의 미래를 위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세대 인재들을 발굴하고 역할을 부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패권주의 극복·협치 통한 정치적 신뢰 구축

### 대의 위한 통 큰 정치·차세대 인재 발굴 시급

가 승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증명됐듯이 야권 분열 구도가 꼭 여당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야권의 대선 주자 및 정치 상황에 따라 3자 구도가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선과 대선은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3자구도 필승론’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야권 후보 단일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선에서 여권 후보와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터민주 일각에서는 야권 통합론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3당 체제에서 야권 통합론은 사실상 터민주의 국민의당 흡수 통합론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도에 상처를 입은 호남으로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대표 등이 주장하는 결선투표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3명 이상의 경쟁 구도에서 1위 후보가 과반 이상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1위와 2위 후보를 대상으로 다시 2차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 및 선거법 개정 논란이 있는데다 새누리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성찰과 경쟁, 협치=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체제로 전개됨에 따라 차기 대선에서 야권의 정권 창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상위권에 랭크되고

## 기고



박상철  
경기도 정치전문대학원장

## 3당체제와 호남정치의 갈 길

4·13 총선에서 호남은 국민의당을 선택하였다. 상당기간 구호처럼 외쳐 오던 호남정치의 복원이 국민의당 석권으로 종결된 것일까? ‘과연 그럴까’, 단정 짓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재 호남정치의 결과 속이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4·13 총선을 판독할 때 가장 예리하게 분석할 곳이 호남이다. 4·13 총선은 16년 만에 여소야대의 국회를 구성하고 20년 만에 3당체제를 탄생시켰다.

3당체제는 호남을 절대적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의 등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한국정치사에 새로운 3당체제의 정립이 구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국민의당이 과거 충청지역의 자민련처럼 자생적인 호남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이념적 결사체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3당체제를 숙단하기는 이르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의 호남 첫 진입은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탈당파 의원들과 구 동료 인사들과의 결합은 호남 정치의 개혁과 복원은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김종인 대표가 광주공천의 허술함과 호남 민심에 대한 안이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당에게 반사이익이 돌아갔다.

호남을 석권한 국민의당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정당득표를 근거로 해서 전국 제1야당임을 천명하고 있다. 의형상 호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기반이 있다면 그 정당은 분명 제1의 수권야당이 되고 할 수 있다. 과연 국민의당이 호남 외에도 전국적인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서 힘을 발휘한 정당투표, 분할투표의 투표행태를 분석할 때 새누리당의 지지층이 더불어민주당까지 갈 수 없고 국민의당으로 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주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새누리당 지지층이 아닌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새누리당의 지지층이 국민의당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지역적으로 호남의 몰표와 새누리당

의 지지층이 포함된 중간층이 주요 지지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과연 이 이질적인 국민의당의 지지기반이 지속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이고 국민의당도 분명한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권교체의 기회와 꼭 풀어야 할 숙제를 동시에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풀어야 할 숙제는 매우 간단·극명한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호남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고 둘째, 국민의당을 선택한 중간층의 표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정치 복원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4·13 호남표심을 정확히 읽어내야 한다. 호남인과 더불어민주당의 오랜 전통에서 볼 때 정정서가 맞고, 민주·저항·인권·남북평화라는 정치적 동지임에 분명하다. 다만 2012 대선의 패배를 함께 겪으면서 또 다시 정권교체를 향한 절치부심 이 달린 상태이다. 같은 정치운영체제로 확신 이 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창당파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으로의 분열과정에서 호남민심은 이를 유심히 관찰하였고 문제인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결론내지 못했다. 이것이 4·13 총선의 호남표심으로 나타났다.

호남은 더불어민주당을 버린 것이 아니라 보류하고 있다.

20년만의 3당체제는 호남이 탄생시켰고 호남이 선택하였다. 지역적, 폐쇄적 정치선택을 한 충청지역 자민련의 정치행태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제3당의 정치에 익숙했던 자민련의 총정과는 달리 호남의 민심은 2번과 수권정당의 선택에 있다.

호남이 선택한 3당체제는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은 불변의 상수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게는 각각 경쟁의 과제를 던져준 것이다.

호남정치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산술적이 아닌 복잡하고도 기묘한 기하학적 고민과 연구를 하여야 한다. 4·13 총선 호남표심은 의석수와 각 당의 득표율을 전천후 들여다볼 때 결과 속이 다르고 호남의 민심은 어떤 목표를 향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안철수 ‘녹색돌풍 감사’ 5·18 묘지 참배 이번 4·13 총선에서 호남 유권자들은 국민의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냄으로써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내고, 20년 만에 3당체제를 탄생시켰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를 마친 뒤 민주주의 문 앞에서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0년 노하우

미래형 투자 컨설팅 **지오옥션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 (주)**

고객 맞춤형 투자 추천!! 전지역 부동산 신속한 책임중개상담

경, 공매 NPL 컨설팅 전문업체

### 지오옥션 경매 컨설팅

20년경력의 부동산 컨설턴트 성실한 상담

- ★ 공장 나주시 오량동 단층 및 2층공장, 대지5,735㎡ 건물3,965㎡ 동수오량농공단지내 ▶ 감평가 34억6천7백, 최저가 15억5천5백 (감평가의45%)
- ★ 공장 화순군 동면 단층 및 2층 미곡공장, 대지6,844㎡ 건물1485.8㎡ 연동마을인근 ▶ 감평가 13억2천만, 최저가 4억7천3백 (감평가의36%)
- ★ 공장 전북 순창군 순창읍 교성리 전통식품공장, 대지7940㎡ 건물3502㎡ 단층 및 3층 ▶ 감평가 24억9천4백, 최저가 4억2천
- ★ 공장 광안구 안청동 하남산단내 대지5,940㎡ 건물5872㎡ 단층 및 2층 ▶ 감평가 57억6천8백, 최저가 57억6천8백
- ★ 나주시 경현동 지하층~지상3층 연수원건물, 대지1,488㎡ 건물2,075㎡ 경현리유원지부근 ▶ 감평가 30억6천5백, 최저가 8억7천9백 (감평가의29%)

※ 전지역 병원, 사우나 매매, 매입 상담 ※

**미래형 투자 컨설팅 지오옥션**

조여사 010-6211-4585

채용 공고

- \* 경매투자에 관심있는분
- \* 부동산 배우면서 일할분
- \* 공인중개사
- \* 열정과 소신이 있는분
- \*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분
- \* 자격증 소지 무관

지금 도전하세요!!

T. 062-714-2251

### 지오옥션 부동산중개법인(주)

수익성 부동산 다량 보유

- ★ 광안구 옥동 평동역부근 근린시설용지기업은행뒤 대지 479㎡, ▶ 매매 5억8천만 (조정가)
- ★ 동구 학동 일반상업지구 대지 195㎡ 웰빙건강랜드부근 ▶ 매매 2억2천만 (조정가) 현 주차장
- ★ 근린시설 남구 주월동 지하층, 지상8층 대지 3752㎡ 남구청 부근대로변 ▶ 감평가 35억4천4백, 최저가 35억4천4백
- ★ 근린시설 동구 동명동 8층 건물 대지 700㎡ 건물 2005㎡ 왕복 4차선▶ 감평가 19억6천, 최저가 19억6천
- ★ 의료시설 장성군 삼서면 상무대 입구, 대지 11,546㎡ 건물 5,733,24㎡ 대로변 ▶ 감평가 48억8천6백, 최저가 48억8천6백

※ 전국 물건 매입 ※

**지오옥션 부동산중개법인(주)**

공태풍 010-3820-8151

T. 062-714-2251

NPL채권 전국 물건 상담

이주원 국장 010-7171-7610

권리분석, 수익성 상담

강천구 이사 010-6838-6008